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pp.305-328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개화기 종교적 변화의 교육적 함의

이재일

(선문대학교)

《요약》

전통사회에서 종교와 교육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세계관의 원천이 되는 종교는 교육의 목적과 인간상을 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그런데 개화기에 들어와서 종교와 교육은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종교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화이론적 세계관이 해체되었으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이념이 수용되었다. 그리고 개화기에는 유교가 권위를 상실해 가고 기독교가 부상하면서 유교적 사회에서 다종교적 사회로 나아갔다. 이러한 종교적 흐름과 국권이 위협받는 국가적 상황에서 전통적 유교교육과 근대적 실용교육이 절충된 신교육이 실시되었다. 특히, 점증하는 열강의 침략 위협에 직면하여 국권수호와 민족의 보전을 위해 실용적 지식과 기술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국가주도의 신식학교는 전통적 교육의 체제와 내용에 서구의 과학기술과 언어가 보충된 교육을 실시했지만, 이는 종교 사상의 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립된 교육형태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교육은 인격교육의 면에서는 종교적 기반을 상실해가게 되었고, 지식 교육의 면에서는 충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핵심 주제어: 개화기(1876- 1910), 종교자유, 정교분리, 전통적 유교교육, 근대적 실용교육

《Abstract》

**The educational implication of the religious
transformation in the enlightening period(1876- 1910)**

Lee, Jae Il

(Sun Moon University)

Religion and education have been related very closely in traditional society. Religion has affected to set up the purpose of education and the image of ideal human being. Yet they started to be separated into each other in the enlightening period. In that period, the term of religion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n society and the world view centering on China was destroyed. Also, the idea of religious freedom and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were introduced to Korean society.

In the enlightening period, Confucianism lost its power and Christianity gained its power. Therefore, Korean society has changed from Confucian society to multi-religious society. On this situation the traditional-Confucian education and modern-pragmatic education were combined and carried out. Especially in order to keep the national sovereignty and identity, it was stressed to teach the pragmatic knowledge and technology. The new style schools, which were on the bases of traditional education system and supported by Korean government, taught Western science and technology and foreign languages.

This was not what was formed through full discussion on the aspect of religious though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character education in that period lost its religious foundation and that the pragmatic knowledge education was incomplete.

Key words: enlightening period(1876- 1910), religious freedom,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traditional-Confucian education, modern-pragmatic education.

I. 서론

바람직한 인간의 형성을 지향하는 교육은 사회의 여러 부문들과 연관되어 있다. 교육은 그 중에서도 정치나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종교는 가치관의 원천이 되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정립하는 기반이 되므로, 교육은 종교사상에 힘입어 교육적 이상과 목표를 설정하여 왔다. 그리고 교육은 정치가 부여하는 국가발전을 향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교육과 종교를 서양 전통에서의 어원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한다면, 양자는 공통점보

다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¹⁾ 그러나 한자 문화권에서의 교육과 종교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인식된다.²⁾ 교육과 종교의 공통점은 양자가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과 종교는 인간이 바람직하게 살아가도록 지식과 태도와 믿음에 관련된 교화활동을 전개한다. 그런데 객관적 경험에 근거한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이 전개된다면, 종교는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믿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³⁾ 교육은 객관적 지식을 중시하고 이상적 인간상을 정립하여 이에 맞게 학생을 길러내려 하는데 비해, 종교는 주관적 믿음을 중시하고 이상적 인간상을 탐구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신도들을 권장한다.

이러한 교육과 종교는 역사상에서 서로 끊을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전통사회에서는 종교와 교육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보고(寶庫)였다. 그 중에서도 유교는 국가 종교로서 조선사회의 전통을 가장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있었다. 조선사회에서 교육은 그 어느 요소보다도 유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양자의 분리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전통사회에서는 종교와 교육의 영역이 중첩된 상태로 존재했다. 그런데 개화기에 들어와서 종교와 교육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사회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종교와 교육은 근대적 형태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고, 각각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종교와 교육이 서로 무관한 것처럼 인식되고 교육적 담론에서는 종교가 배제되는 경향이 많이 되었다.

개화기는 국권상실의 국가적 비상사태이었다. 이는 유학과 서학을 중심한 종교사상의 문제로도 이해될 수 있다. 당시의 사상적 흐름은 척사위정론과 개화론으로 대비될 수

1 religion은 라틴어 religio에서 유래했다. religio의 의미에 대해서는 두 견해가 있다. 첫째는 ‘다시 읽는다’는 뜻의 re-legere로서 종교의식에서 반복적으로 낭송되는 것이라고 본다. 곧,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다시 묶는다’는 뜻의 re-ligare로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으로 본다. 김승혜 편저, 『종교학의 이해』 (왜관: 분도출판사, 1989), 17쪽.

2 宗教라는 용어는 개화기에 영어의 religion에 대한 번역어로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근본적 진리라는 뜻의 ‘宗’과 진리가 상대에 따라 나타난 가르침을 뜻하는 ‘教’라는 한자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종교’에는 우주와 인생에 대한 근본적 가르침이라는 한자 문화권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문화사전』 (서울: 집문당, 1991), 580쪽.

3 이계학, 「교육의 본질과 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과학연구부 교육윤리연구실, 『삶의 질과 교육』,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3쪽.

있다. 척사위정론은 유교를 기준으로 삼고 기독교를 배척한 반면, 개화론은 척사론에 비해 기독교에 호의적이었다. 교육은 당시대의 종교사상과 관련을 맺는다. 그러므로 개화기에 나타나는 종교사상의 변동과 관련되어 교육문제가 탐구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화기에 대한 교육사적 연구는 이러한 사상적 입장의 배후인 종교적 문제를 소홀히 하였다. 종교가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존속해 왔음을 감안할 때, 교육사적 고찰은 종교를 포함해야 한다. 특히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인 개화기에 우리의 문화와 전통은 종교로 포장되어 존재하였으므로, 당시의 종교적 위상변화는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화기 한국사회에서 종교적 변화와 교육적 변화는 어떠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는가? 과연 종교와 교육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이 연구는 개화기에 지식인 사회에서 전통에 대한 비판의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유교의 실세(失勢)와 기독교의 부상 그리고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이념의 수용 등과 더불어 변모되는 교육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개화기의 사회와 종교

1. 조선 전통사회의 유산

종교는 가치관의 근원이며 실체이다. 근대 이전에는 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사회의 규범과 질서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⁴⁾ 그러므로 조선시대에서도 종교가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곳에 자리잡고 사회를 주조(鑄造)해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종교는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문화를 성립시킨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조선시대의 문화는 유교 사상과 농업 생활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이다. 이 문화권에서 선비는 개인적으로는 관료와 군자를 지향했고, 집단적으로는 친족집단의 구성원으로 살아갔다. 이러한 삶의 양태를 제시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유교였다. 유교의 경서류는 조선 사회에 이념적 정향을 제시하는 교재였다. 그래서 사대부 집안에서는 유교 경전을 통해 유가적 세계관, 사회질서, 삶의 방식을 습득했다. 조선 사회에서는 성리학이 이념적 기반이 되면서 여타 종교나 사상은 사문난적으로 배척되었다.

4 윤이흠, 「근대 한국사회의 변혁과 종교」, 이리: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 22집, 1997, 141쪽.

조선 사회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유교는 초월세계나 신에 대해서는 경이원지(敬而遠之)하는 소극적 태도를 취했고, 현실세계에 대해서는 적극적 관심을 두었다. 유교적 신앙에는 하늘이 부여한 덕의 내재화와 조상을 통하여 하늘에 이르는 영혼이 전제된다. 하늘의 내재화가 덕(德)과 인(仁)과 성(聖)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인간이 하늘과 소통하고 감응한다는 천인합일 사상이 제시된다. 유교에서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통해 조상과 후손을 연결시킴으로써 자기 존재의 연속성을 추구했다.⁵⁾ 유교는 현실 문제의 해결을 인간의 합리성과 윤리성에서 찾았고 수기치인(修己治人)을 목표로 삼았다. 유교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현실세계에 관심을 두고 합리적이며 도덕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질서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류으로 규범화되었다. 유교는 정치와 인사에 도리와 이치를 제시하는 합리적 가르침이었다. 유교는 종교이면서 정치사상이자 교육사상으로 역할을 했다. 유교는 정치와 교육의 근본 이념이었다.

조선왕조는 공자의 가르침에 철학적 사유를 심화해간 성리학을 국가종교로 삼았다. 조선의 전통사회에서는 국가종교로서의 유교가 교육, 행정, 의례 등의 사회조직에 이념적으로 스며들어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유교는 정치, 사회, 문화, 도덕, 종교 등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발휘하는 종합적 조직이었다. 그리고 어느 것이 근본의 기능이고 어느 것이 말단의 기능인지에 대한 자기 확인이 있어왔다.⁶⁾ 이러한 면에서 유교는 인간 삶의 바탕이요 방향이며 목표가 되었다. 조선이 국가종교로 삼은 성리학은 이기론(理氣論)과 심성론(心性論)으로 요약된다. 이기론에 의하면 우주만물은 이와 기로 결합되어 있다. 인간은 이를 근원으로 하기에 자율적이고 평등하나 기의 작용에 따라 차별상을 이룬다. 이를 부여받아 이루어진 인간의 성(性)은 순선한 본연지성이지만 기질을 매개로 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으므로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나타난다. 본연의 성이 기질의 작용에 따라 현(賢)이나 우(愚), 혼(昏)이나 명(明) 등의 차이를 지니는 기질의 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기질의 성을 다스려 본연의 성을 되찾아야 한다. 이처럼 성리학의 이기론은 우주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여 인생의 원리로 삼는다. 심성론의 요체는 심통성정(心統性情)으로 표현된다. 개인의 주재자인 심은 이와 기를 갖추고 있으며 성과 정을 통섭하는 주체이다. 성리학은 심의 수양 즉, 거인욕(去人欲)과 존천리(存天理)로 본연지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심성의 수양방법은 거경궁리를 위주로 하는바, 거경은 거경함양(居敬涵養) 즉, 존심양성(存心養性)으로 그리고 궁리는 성찰궁리(省察窮

5 김장태,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225-230쪽.

6 위의 책, 119-120쪽.

理) 즉, 격물치지(格物致知)로 이해되었다. 이는 덕성과 지성의 양 측면을 함께 함양하는 마음 수양과 지적 탐구의 공부방법이었다.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조선 사회에서 선비의 삶이란 『대학』이 제시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 요약된다. 천도를 깨우쳐 이를 실현하는 길을 체득하기 위한 수기의 단계에서 치열한 학문연마와 인격수양을 하고 치인의 단계에서 천도와 인륜을 세상에 확대하여 태평성대를 추구한다. 선비의 실제생활은 검약과 절제, 청렴을 미덕으로 삼았고, 시류에 영합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으며 시시비비의 춘추정신을 신봉하였다. 이처럼 유교는 수기와 치인의 학문으로서, 개인의 인격완성과 이상사회의 실현에 대한 가르침을 주로 하고 있다. 유학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대동사회(大同社會)란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대도(大道)가 행해짐으로써 천하가 공적인 사회가 되는 이상적 세계이다. 그런데 이는 현실적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세계이므로, 실현 가능한 사회로서의 소강사회(小康社會)가 제시된다.⁷⁾ 이처럼 유교는 수기치인의 행도를 통하여 덕치(德治)와 예치(禮治)를 실천함으로써 소강 사회의 실현을 현실적인 목표로 한다. 유교적 정치는 덕치와 예치를 이상으로 하되 현실적으로는 법과 형벌에 의존하는 정치를 한다. 그런데 법과 형벌에 의한 정치는 강제력에 기반을 둔 것으로 질서유지는 가능하지만 인간의 자율적 규제력을 마비시킨다. 반면에 덕과 예에 의한 왕도정치는 사회성원의 자율적 규제력을 향상시켜 이상향에 나아갈 수 있다.⁸⁾ 조선조 유교정치체제의 법제적 전범인 『조선경국전』은 조선의 정치체제가 민본과 덕치의 원칙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예악형정(禮樂刑政)에서 예악은 교화의 근본이고 형정은 교화의 지말(枝末)임을 분명히 한다.

성리학의 이념은 조선사회에서 정치이념이자 교육이념이었다. 유교의 경전은 교육의 이념을 제시한다. 유교에서 교육은 국가의 지도자를 기르고 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백성을 문화적으로 다스리는 도구로 중요시된다. 조선의 전통사회에서 종교와 교육은 거의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용어로는 도, 교, 법, 학, 술 등의 개념이 있었을 뿐, 현대적인 종교 개념은 없었다. 여기서 도란 길 또는 군자나 성인이 되기 위한 방법이었고, 교는 일반적 가르침이거나 구원을 얻기 위한 특정의 가르침이었다. 때로는 도가 교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는 용어로

7 『禮記』禮運篇 참조.

8 강광식, 「조선조 유교정치문화의 구조와 기능」,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치·경제연구실, 《한국의 정치와 경제》1집, 1992, 5-8쪽.

사용되기도 하였다. 법은 주로 불교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인간행위의 모범을 뜻했다. 학은 단순한 배움 또는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배움을 의미했다. 그리고 술은 도나 학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⁹⁾ 이러한 용어 중에서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 교, 학을 살펴보면, 성인의 삶의 방식인 도가 이 세상에 제시되는 것이 교이고, 성인이 되고자 이를 배우는 것이 학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의 전통사회에서 교육은 곧 교학으로 인식되었다. 『중용』의 첫째 장은 도는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따르는 것이고 교는 그 도를 닦는 것이라고 하여 도와 교는 천부적 본질의 현실화에 필수적인 것이고 양자는 밀접하게 연관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도와 교가 한자 문화권에서는 종교와 교육을 지칭하는 중요한 용어였다. 이처럼 언어 상으로도 교육과 종교는 혼용되는 용어였고, 종교와 교육의 분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전통사회에서 종교와 교육은 국가 이데올로기와 그에 충실한 인간을 형성하는 재생산 기제였다.

2.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개화기에는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거나 기존 개념의 의미가 변형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종교라는 개념이었다. 오늘날에 통용되는 종교라는 개념은 일본에서 1860년대 말에 religion의 번역어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전에는 종법(宗法)이나 종지(宗旨)로 번역되기도 했었다.¹⁰⁾ 한국에서 종교 개념의 사용은 1883년에 유길준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흔히 한국에서는 한성순보 1883년 11월 10일자에 종교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 그러나 유길준은 일본에서 귀국한 1882년 말부터 미국으로 출발하는 1883년 7월 사이에 여러 편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신문창간사」와 「세계대세론」에서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¹²⁾ 그 이전 시기에는 개별 종교들을 총칭하는 종교 개념은 없었을지라도, 조선에는 전통적으로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무속신앙이 존재해 왔다. 또한 일찍이 서구에서 전래된 천주교가 서학으로 알려져 있었다. 개화기 지식인층에서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구별되어 인식되었다. 전통사회에서 서로 융해되어 있던 정치, 종교, 교육이 개화기에는 분리되어 인식될

9 장석만, 개항기 한국사회의 종교 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32-37쪽.

10 장석만, 앞의 글, 38-39쪽.

11 장석만, 위의 글, 39쪽.

12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유길준전서』 III권(서울: 일조각, 1996), 9-13쪽 그리고 IV권, 9쪽.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존망이 위급했던 개화기에는 사회의 여러 부문에 대한 이해에서 그 본질적 측면 보다는 기능적 측면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되었다. 전통적 가치관이 해이해지고 열강의 침략 무대가 된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이루어야 할 당면과제는 문명의 달성과 민족 정체성의 유지였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는 당면한 민족적 과제해결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해되고 평가되었다. 당시의 종교에 대한 관점은 대체로 4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종교가 문명화에 장애요소라는 반종교적 관점, 종교[초월] 영역과 과학[현실] 영역을 분리하여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위치시키는 정교분리적 관점, 종교가 문명화에 기여한다는 문명기호적 관점, 종교가 체제통합에 유익하다는 인민교화적 관점이었다.¹³⁾

개항기에 개항과 개화를 반대했던 세력은 척사위정을 표방하였다. 이는 정학(正學)인 성리학을 지키고 그 외의 종교와 사상을 사학(邪學)으로 간주하여 배척하는 태도이다. 척사파의 주류는 재야유생이었다. 그들은 서학은 곧 사학인데, 이것이 전파되면 그 영향으로 화이론적 세계관이 붕괴되고 조선은 금수(禽獸)의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국내 서학 신자의 호응으로 외국이 침략할 것을 염려하였다. 그들은 황준헌의 『조선책략』에 자극되어 「영남만인소」로 개화를 반대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유학만을 붙들었고 기독교의 교파 구분이나 그 차이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이와 달리 실학의 맥을 계승한 개화파는 서구문물에 호의적이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는 유학적 토양에서 성장한 인물들로서, 당시의 상황에서 성리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서양의 종교나 사상에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개화파의 선구인 박규수는 한때, 천주교를 침략적 사고로 보았었다. 그러나 열하문안사행(熱河問安使行)의 부사로 중국을 다녀온 후에는 서양은 강력하며 진출의도는 통상교역과 종교 전파에 있으며 영토침탈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였다.¹⁴⁾ 그는 중국에 가서 서양 문명을 좀더 가까이 살펴보고 서양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박규수에게 사사한 김윤식은 종교란 교리는 다를지라도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권장하여 항심(恒心)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종교간의 갈등을 해소하려 하였고, 종교가 국민의 심성을 해치고 정사(政事)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종교를 물리칠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종교의 교화적 기능에 기초하여 종교 자유를 지지하였다. 나아

13 장석만, 앞의 글, 1992, 39-58쪽.

14 손형부, 『박규수의 개화사상 연구』(서울: 일조각, 1997), 1편 2장과 2편 1장 참조.

가 종교의 자유는 세계적 규범이고 동서양의 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¹⁵⁾ 그러면서도 그는 기독교의 수용에는 망설였는데, 이는 당시의 국내 사정이 외국 종교를 받아들일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개화기는 근대로 문을 열어 가는 전환기로서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고 있었다. 중국에 왕래하던 사절단을 통해 서양문명과 서학에 관한 서적에 접한 지식인들은 기독교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 세계에 여러 종교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항과 더불어 서구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종교라는 개념과 종교 일반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사회 전반적으로는 유교적 사고가, 그 강도가 약화되었을지라도, 계속 지배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유교는 척사위정파로 불리는 수구세력의 배후 이념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개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근대화의 저해 요인으로 비판되었다. 조선이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휘말리고 급기야 일제에 예속되어 가면서 유교는 망국의 종교로서 비판을 받았다. 망국의 전통이 비판되면서 전통을 보전해온 전통종교인 유교도 비판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기독교는 이단사설이라는 혐의를 점차 벗어 나아갔다. 천주교는 1886년 한불조약으로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개신교는 문화선교와 서양사회에의 창구역할로 근대화에 일정부분 영향력을 미쳤다. 기독교는 서구의 근대문명을 앞세우고 들어와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서양에 개방적인 인사들에게는 국운만회의 가능성을 지닌 종교로 인식되었다. 한편, 개신교는 우월한 문명의 종교임을 자처하면서 전통 종교를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기독교는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는 작용하지 못했다. 동학은 갑오농민 전쟁을 일으켜 관리의 타락에 항거하고 항일정신을 고취시켰으나 사회변혁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불교와 도교 그리고 무교 역시 이 시기에 적극적 영향력을 행사할 처지에 있지 않았다.¹⁶⁾

3.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이념의 유입

15 한국학문헌연구소, 『金允植全集』 下(서울: 아세아문화사, 1980), 623-624쪽.

16 종교는 가치관의 원천으로서 사회변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는 객체가 되기도 한다. 종교가 사회변혁을 주도하려면, 우선 기존의 문화 전통에 잠재된 근본 가치를 새롭게 회복해야 하고, 다음으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나 개화기에 조선의 종교, 즉 전통종교와 신종교 그리고 서양에서 전래된 종교는 이러한 두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이흠, 앞의 글, 141- 142, 146, 150쪽.

서양에서 출현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이념은 기독교 선교사와 한국의 선구적 지식인에 의해 도입되었다. 개항 이후의 상황은 점진적으로 기독교가 허용되는 추세로 변해갔다. 1871년 음력 4월 미국 군함이 강화도를 침범한 신미양요의 와중에서 국왕은 외국과 교역을 하면 사학(邪學)이 번성하여 유교가 쇠락할 것이라고 염려했다.¹⁷⁾ 조선 정부는 1876년 한일수호조약의 체결에서 서교서적의 엄금을 명시하려 했으나 조약문에는 넣지 못하고 각서로 작성하여 교환하였다. 1882년에 체결된 한미조약에서도 기독교 불허조치를 명문화하지는 못했다.¹⁸⁾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마당에 쇄국정책을 표방한 척화비는 무용지물이 되었기에, 이 해에 척화비를 철거하였다. 미국과의 수호조약 이래로, 연이은 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에서 조선에 거류하는 통상 상대국 국민의 종교 자유를 허락하게 되었다.

천주교는 몇 차례의 교난(敎難)을 거치면서 전교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다. 한일간의 수호조약으로 조선이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는 천주교 선교사에 대한 금압조치가 완화되었다. 1878과 1879년에는 선교활동 중이었던 프랑스 신부들이 체포되어 국외로 추방되었으나, 1881년에는 체포 후 곧, 석방하였다. 이는 전교 금압 정책이 방임 또는 묵인정책으로 바뀌어감을 보여준다.¹⁹⁾ 1886년에 조선이 프랑스와 체결한 조약에는 “교회(敎誨)”를 허용하고, 호조를 가진 내지 여행도 허락했으며, 프랑스인의 과실은 프랑스 영사관에 이송되어 처벌된다고 합의했다. 이후 천주교 성직자들이 조선국법에 적용 받지 않는 특권적 존재로 부상하게 되었다.²⁰⁾ 조선 정부는 “교회”의 허용을 종교 관련사항의 허용으로 여기지 않았으나, 프랑스 측은 이를 기독교의 허용으로 해석했다. 막강한 군사력을 배후에 지니고 조선에 들어온 서구 세력의 조약문 해석은 허약한 조선 정부의 조약문 해석보다 우세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약문은 선교자유에 대한 문서상의 근거가 되었다.

이와 같이 1886의 한불 조약문에 삽입된 “교회”라는 모호한 문구는 프랑스 측이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빌미가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조선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계기가 되었다.²¹⁾ 그리고 1899부터 1904까지의 정부와 천주교의 협약으로 조선

17 『승정원일기』 고종 8년 4월 20일조.

18 이광린, 「개화파의 개신교관」, 『한국개회사상연구』 (서울: 일조각, 1979), 206쪽.

19 이원순, 「한불조약과 종교자유 문제」,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사연구》 5집, 1987, 79쪽.

20 위의 글, 84쪽.

21 1878년 이후의 전교 묵인 정책으로 개신교 선교사들도 고무되었다. 그들은 1880년대 중반부

인의 종교자유 그리고 조선에서의 정교분리는 기초를 굳건히 다지게 되었다. 즉, 조선의 정부나 지방관아와 천주교 사이에 체결된 협의로 조선사회는 정치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이 구분됨을 확인해가게 된 것이다.²²⁾ 개신교는 1900년대 초에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1901년 7월 장로회 공의회는 교회 일과 나라 일은 같은 일이 아니므로 목사들은 나라 일과 정부 일과 관원 일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할 것을 결의하였다.²³⁾ 그리고 일제도 정교분리를 내세워 기독교계의 항일 민족운동을 억제하려했다.²⁴⁾

한국인에 의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이념의 소개는 박영효와 유길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1888년에 박영효는 상소문에서 종교가 교화의 근본임을 말하면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무릇 종교라는 것은 백성에게 맡기어 자유로이 신봉케 할 것이니 정부가 관여하고 간섭함은 가하지 못합니다. ... 어떠한 종교라도 묵인하고 불문에 부쳐 백성들이 자유로이

터 입국하여 교육과 의료 활동을 시작하였다. 정신 재생산 활동인 교육 사업과 육체의 재생산 활동인 의료 사업은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지닌 조선인들의 마음을 열어 가는 데에 성공적이었다. 특히, 교육 선교는 젊은이들의 의식을 서구 지향으로 바꾸어 가는 데에 최선의 방책이었으며 서구적 교육제도를 조선에 정착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22 서양문화의 유입과 열강의 위세 속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이후 기독교 측과 민간인 또는 관리들 사이의 충돌인 이른바 教案이 자주 발생하였다. 결국 내부는 1889년 3월 전국 13도 관찰사에게 교민보호를 훈령할 수밖에 없었다.(독립신문 광무 3년 9월, 잡보 「내부훈령」) 계속되는 教案을 해결하기 위해 천주교 측과 조선 관리들이 회동하여 협정을 맺게 되었다. 1899년 3월 9일의 교민조약, 1901년 7월 2일의 교민화약, 1904년 6월 6일의 선교조약은 전교의 자유가 외교적으로 확정된 후 교안을 해결하고자 교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정교분리의 종교정책에 접근해갔다.(이원순, 앞의 책, 93쪽.) 이는 정부가 정치권력 외에 교회권력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었다. (최종고, 「정교분리의 한국적 의의」,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현대사회》 25, 1987. 봄호, 45쪽.

23 박성수, 『한국근대사의 재인식』 (서울: 동아학연사, 1982), 80쪽.

24 헌법상으로는 신교의 자유를 표명한 일제는 식민지 정책상 정교분리를 추진하였다. 1905년 伊藤 통감은 감리교 감독 M. C. Harris와의 회담에서 정치적 사건은 자신에게 맡기고 정신적 교화는 선교사들이 맡으라고 하였다.[朝鮮總督府, 『朝鮮의 統治と 基督教』 (경성: 조선총독부, 1922), 6쪽.] 이후 1907년 5월 2일 G. H. Johns와 W. B. Scranton은 伊藤를 방문하여 선교사들은 政治인 事件에는 간여하지 않고 韓國人의 道德적이고 靈적인 高揚에 힘쓸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伊藤의 책략에 동조하였다.(이만열, 『한말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평민사, 1980), 114쪽)

선택하도록 맡기십시오. 그러나 당장 교회당을 짓도록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화란(禍亂)을 야기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²⁵⁾

박영효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주장하면서도 기독교의 즉각적인 허용이 사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염려하여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길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유길준은 종교를 권선징악과 도덕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았다. 유길준에게 종교란 마음 다루는 도리로서 악을 버리고 선에 도달하도록 인간의 양심을 계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는 “종교의 권리는 국가의 전상(典常)을 불범(不犯)하는 시(時)는 기귀의(其歸依)하는 신심을 각종(各從)함이라”고 하여 법을 어기지 않는 데두리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말하였다.²⁶⁾ 또한 서구에서는 종교적 논쟁은 결론짓기 어려우나 인지가 개명되면 스스로 바르게 될 것으로 여기고 정부는 신교의 문제를 국민이 각자 즐겨하는 것을 신봉하도록 자유로 맡겨 두게 되었다고 하였다.²⁷⁾ 이처럼 그는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아 종교를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자유의 하나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유길준은 종교의 자유와 종교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을 개화한 정치의 요건으로 삼았다.²⁸⁾ 정부의 종교에 대한 개입문제에 대해서 그는 종교 지원론과 종교 불간섭론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나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국민의 세금을 종교에 지원하는 문제는 국민의 교육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민이 개화하지 못하고 교육이 미약한 경우에는 세금으로 종교에 지원하여 국민의 심성을 이끌어야 하고, 교육된 국민의 경우에는 각자 믿고 의지하는 종교에 귀의하게 하고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²⁹⁾ 그는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민이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할 만한 상태에 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세금을 거두어 종교에 지원하여 국민의 심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신앙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분명히 언급하였으되, 정교분리는 국민의 교육 수준이 미약하면 유보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던 것이다.

이처럼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조선에 유입되고 서양의 문물과 기독교의 영향

25 외무성조사부, 『일본외교문서』 21 (동경: 일본국제연합회, 1936), 307쪽.

26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유길준전서』 1권(서울: 일조각, 1996), 145쪽. 1권 서유견문의 경우에는 1895년에 출간된 판본의 쪽수를 따랐음.

27 위의 글, 345쪽.

28 위의 글, 173-174쪽.

29 위의 글, 219-220쪽.

력이 증대하면서 그리고 국가종교였던 유교가 권위를 잃으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정교분리의 이념은 유교사상과는 상치되는 것이었다. 유교는 성과 속을 근원적 대립 관계로 보지 않고 속을 승화시켜 성에 도달하려고 한다. 즉, 유교는 성속합일(聖俗合一)을 지향한다. 속세에서 살면서 반성을 통해 속을 승화시켜 성을 성취하고자 한다. 유교에서는 성을 대표하는 종교적 권위와 속을 대표하는 정치적 권위가 일치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긴다.³⁰⁾ 그러므로 조선이 정교분리를 수용하는 것은 유교국가로서의 조선왕조의 이상을 수정해야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지라도 개화기에는 사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성리학적 사고방식이 우세한 상태에 있었다. 당시에는 인민의 정신을 관장하는 종교가 국가 발전의 근본이 된다는 의식이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³¹⁾ 종교가 정치와 교육과 함께 국민의 교화를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치관과 도덕의 근원이 되는 종교는 정치의 근본으로 인식되었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종교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넓게 보면, 유교적 질서를 고수하려는 척사위정론, 서양의 기독교를 받아들여 부강해지려는 기독교 수용론, 유교를 새롭게 개혁하여 국운을 회복하려는 유교개혁론, 약육강식의 국제적 경쟁을 종교적인 면에서 파악한 종교 경쟁론 등은 모두 정치보다 종교를 우위에 두는 사고에서 나온 주장이었다.³²⁾

개화기에는 종교의 근대적 변혁을 위한 태동이 시작된 시기였다. 서구의 경우, 종교영역의 근대화는 개인신앙의 해방과 주관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영역의 다원화 및 종교의 자립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³³⁾ 개인신앙의 해방과 주관화란 교권과 개인의 관계에서 볼 때 개인이 교회의 권위에 억눌리지 않고 자기가 주체적이고 주관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영역의 다원화란 종교와 종교 또는 교단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다종교 상황이 이뤄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종교의 자립화란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의 조선사회에는 서구와 달리 교권에 매이지 않고도 신앙인 개개인이 주체적으

30 이상익, 「유교에서의 종교와 국가」, 오경환 외, 『교회와 국가』(인천: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7), 723, 726, 731쪽.

31 신순철, 「개화기의 종교와 국가」, 오경환 외, 앞의 책, 431-434쪽.

32 위의 글, 427-452쪽.

33 한국종교연구회, 앞의 책, 275쪽; 이진구, 종교자유에 대한 한국개신교의 이해에 관한 연구 -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25-27쪽.

로 자기 신앙을 추구하는 근대적 시민세력이 미약했다. 종교적 근대화의 기반이 되어야 할 개인 신앙의 해방과 주관화를 추구할 만한 여건이 성숙되기에는 좀 더 시일이 필요했다. 그런데 사회적 조건은 동서양의 종교가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다원적 종교지형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종교의 자립화 곧, 국가와 종교의 분리는 점차적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동양 전통종교의 쇠퇴와 서구 근대종교의 흥기 그리고 이로 인한 전통문화의 해체와 서구문화의 이식과 확산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III. 개화기의 종교와 교육

1. 전통적 종교기반의 해체

개화기는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이념을 수용해감으로써 성리학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이론과 타종교를 이단시하는 이원론적 종교지형이 와해되고 성리학, 양명학,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을 인정하는 “다원적 종교지형”³⁴⁾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에서 정교분리의 이념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 양상을 띄었던 서구의 경우와 달리,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토착종교와 기독교가 공존하게 되어 종교문화의 이중구조를 이루어 나아갔다. 근대적 종교형태를 띤 기독교에 비해 전근대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토착적 전통종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말미암아 개화기 이후 한국사회에는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에 혼란이 생기게 되었다.³⁵⁾

이러한 종교적 변화의 가능성은 조선 후기의 실학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실학은 성리학을 발전시키고자 성리학이 근거하는 여러 경전의 세계에 직접 뛰어들어 탐구하였던 노력이다.³⁶⁾ 한편 실학은 조선의 역사와 지리, 경제와 사회에 관심을 가져 조선왕조의 봉건적 문제점을 비판하고 현실 개혁을 모색하는 근대사상의 초기적 특성을 보인다. 경학의 학문적 관심을 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 실학자들은 사대부의 역할을 재규정하여 교육으로 독서인과 실무인을 겸비한 인간을 기를 것을 주장하였다.³⁷⁾ 성리학이 강조하는 의리지학보다는 경세지학이나 고거지학(考據

34 한국종교연구회, 『한국종교문화사 강의』 (서울: 청년사, 1998), 277쪽.

35 윤승용, 『현대한국종교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47-49쪽.

36 이태진, 「한국의 학문적 전통과 서양 학문에 대한 반응」, 소광희 외, 『현대의 학문체계』 (서울: 민음사, 1994), 96쪽.

之學)의 측면을 강화한 실학은 형이상학에서 형이하학으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³⁸⁾ 이러한 실학의 운동은 조선 후기의 주류사상이 되지는 못하였으나 개화기에 근대를 열어 가는 지식인들의 사상적 선구가 되었다.

조선왕조는 명분주의(名分主義)와 문치주의(文治主義)의 사회였으며 왕도정치를 추구했고, 물질적 가치가 아닌 정신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었다.³⁹⁾ 개화기는 이러한 전통 사회의 중심이며 기반인 종교와 사상이 변화하는 전환기였다. 그리하여 부국강병과 기술의 중시, 왕도정치에서 패도정치(霸道政治)로의 전환, 상업의 진작과 공리주의(功利主義)의 지향으로 나아갔다.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 영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시작되어 점차 정치와 제도 그리고 사상과 세계관에까지 확대되었다. 서구의 문물과 사상, 세계관에 대한 관심과 수용은 조선 사회의 질서를 뒤흔들었다. 그래서 조선의 대다수 유학 지식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조선사회가 문명의 상태에서 이적(夷狄)과 금수의 상태로 전락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맹렬하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이 시대적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개화기는 서구문물의 영향으로 전통사회의 종교적 기반이 해체되는 시기였다. 개화기에 국가 존망의 위기감 속에서 유교는 공적 권위와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유림의 대다수가 척사위정론적 사고를 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개화 사상가로 변신하였다. 그들은 일찍이 일본과 중국에 왕래하며 선진문물에 접하였고 세계의 조류가 문호를 개방한 가운데 문물의 교류와 국가간의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이러한 시대 인식에 공감한 그들은 조선의 개화만이 세계사적 흐름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개화운동을 확대하여 나아갔다.

일부 급진적 개화운동가들이 일으킨 갑신정변 이후 정부의 개화 지향적 움직임은 주춤거리기는 하였으나 계속되었다. 개화운동이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1894년의 갑오개혁이었다. 이 때에 전통적 관리등용 방법인 과거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제 관직에 나아가려는 자들에게 유교경전의 공부가 더 이상 필수적 과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과거제도의 폐지는 사실상 교육분야에서 종교를 분리한다는 국가 정책의 실시와 다름없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유교 배제에는 부국강병과 근대국가형성을 위한 개화정책으로 사회 여러 영역 즉,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등의 분화가 촉진제가

37 우용재, 『조선 후기 교육개혁론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9), 122-171쪽.

38 정옥자, 『조선 후기 역사의 이해』 (서울: 일지사, 1993), 147-148쪽.

39 위의 글, 3쪽.

되었을 것이다.

1884년 7월 이후 일련의 복제개혁⁴⁰⁾과 1895년 11월 15일의 단발령⁴¹⁾은 조선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유교적 의례와의 단절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단발령은 지배층이 고수해온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의 사고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남자가 성인이 되었다는 표시로 상투를 틀고 관을 쓰게 되는 관례(冠禮)를 포기하는 조치였다. 나아가 단발과 변복(變服)은 유교의례 곧, 가례를 생활규범으로 추종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신호로 인식되어 유림의 맹렬한 반대를 받았다. 복식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시대상을 반영한다. 조선 전통사회에서 의복은 신분표시의 수단이었으나 신분제의 철폐와 의관제도의 개혁으로 의복은 이제 실용적 문명의 이기가 될 뿐이었다.⁴²⁾ 이로써 의식주를 중심한 일상생활 중에서 의생활은 유교사상과 무관한 것이 되었다.

유교는 타종교에 비해 특수집단으로서의 사제가 없고 제도화가 낮은 종교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유교는 결속력과 상황변화에의 적응력이 약했다. 사제집단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유교가 지닌 대민교화(對民教化)의 수단은 주로 교육이었다. 그런데 과거제도의 폐지로 유교가 교육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그 전통을 이어왔던 통로를 상실하는 것이었다. 이후 유교는 종교적 전통을 계승하는 방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지지세력 확보에 실패하고, 종교기능을 상실하여 사회적 관습이나 윤리로 잔존하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서 유교개혁운동이 나타났다. 박은식의 대동교 운동, 이승희의 공교 운동, 이병헌의 공교 운동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유림으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한편 불교의 경우, 조선조에는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던 승려들에게 입성금지가 해제되고(1895. 3. 29) 다시 금지되었다가 해제되는 과정을 겪으며 활동에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로써 불교는 조선사회의 전통적 출세간의 종교로서의 성격을 탈피하고 활성화의 기회를 맞이하였으나, 아직 근대적 종교로 등장하지는 못하였다. 불교의 개혁운동으로는 선불교 운동, 만해의 유신운동, 백용성과 박한영의 개혁운동이 있다. 결국, 유교

40 1884년 7월 20일(윤 5월 28일)에는 私服에 窄油衣(周衣) 그리고 冠服에 黑團領을 착용토록 복제를 개혁했고, 1895년 1월 11일(음 1894년 12월 16일)에는 朝臣의 복제를 개정했으며, 1895년 4월 23일(음 3월 29일)에는 공사 예복을 개정했다. 신석호·이홍직, 『연표로 보는 현대사』 (서울: 신구문화사, 1974), 77, 131, 133쪽.

41 신석호·이홍직, 『연표로 보는 현대사』 (서울: 신구문화사, 1974), 141쪽,

42 유송옥, 「개화기 서양복식 유입의 충격과 수용」,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통문화와 서양문화 II』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249-351, 256-259쪽.

와 불교는 종단의 근대적 정비나 교육과 수행 체제의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일제의 침략이 가속화되면서 친일화 책략에 휘말리게 된다.

2. 전통 교육과 근대 교육의 절충

유교적 이상에서는 천부의 본성을 발휘하는 성인(聖人)이 군사(君師)가 되어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친다. 이것이 정치요 교육이고 그 터전이 국가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와 교육은 둘이 아니고 또한 그것은 신성한 일이었다.⁴³⁾ 이처럼 유교적 관점에서 국가는 통치와 교화가 일어나는 영역이었다. 이상적 정치란 군주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이 감화되어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치인 이전에 군주의 수기가 우선되었다. 『대학』이 제시하는 수기치인에서 수기는 교육과 종교의 영역이었고 치인은 정치의 영역이었다. 그러므로 유교는 교육과 종교와 정치가 합일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에서의 국가란 수기치인 또는 내성외왕의 이념에 입각하여 백성을 성화(聖化)하려는 조직이고, 군주란 선각적 지도자였다. 정치는 지도자에 의한 교화였다. 백성이란 지도자를 본받아 성화되려는 무리였다. 그러므로 성리학에 의해 조직화된 조선이라는 국가는 하나의 거대한 종교조직에 다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삶의 다양화를 허용하는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이념을 수용한다는 것은 수기와 치인 또는 내성과 외왕을 연결지어 양자를 병행하는 삶의 포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를 수용해가는 개화기의 종교와 교육과 정치는 이전의 양상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될 수밖에 없었다.

개화기는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항하면서 민족을 보전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 당시 조선의 개화정책은 민족의 보전을 위한 부국강병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 특히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 수행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교육이 국가적으로 강조되었다. 열강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근대교육이야말로 구국의 희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국민을 계몽시켜 나라를 부강하게 함으로써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근대적 교육에 지식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유길준이 인민들에게 지식과 기력이 있어야 나라가 부강해져 독립을 지킬 수 있고 지식과 기력 양자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하였듯

43 이상익, 앞의 글, 732쪽.

이⁴⁴⁾, 개화 지식인들은 국민의 지식과 국가의 독립이 직결되어 있다고 보고 근대교육을 중시했다.

교육에서 실용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1880년대 중반에 새로운 제도와 내용을 갖춘 신식학교인 동문학과 육영공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즉, 1883년 설립된 동문학과 이후에 나타나는 신교육 기관은 교육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도입함으로써 성리학적 교육이념에 입각한 교육기관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신학문의 도입과 유교교육의 약화로 학문계와 사상계가 변화되어 갔다. 교육정책도 실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갔다.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교육개혁은 기존의 교육체제를 개혁하고 신교육체제를 수립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유교적 전통교육이 방치된 것만은 아니었다. 실용교육을 중시하면서도 유교적 전통교육이 추진되었다. 사실상 동문학과 육영공원은 전통교육에 근대교육적 내용과 기능이 보완된 학교였다. 그러나 전통교육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교육내용에서 전통적 가치인 인격수양보다 근대적 가치인 사회적 유용성이 중시되었다. 이후 사회적 효용성은 근대교육과정 구성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다.⁴⁵⁾

정부는 신교육을 전개해 가면서 유교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 서양의 교(敎)는 물리치고 기(器)는 본받는 동도서기론적 교육정책을 시행하여, 서구 근대교육과 유교 전통교육을 병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지식영이 상소(1887. 3)에서 시무를 위한 근대교육과 전통적 유교교육의 병행을 강조하였듯이, 정부는 부실한 성균관을 대신하여 경학원을 설립하고(1887. 7), 당상관의 추천을 받은 자들에게 유교교육을 실시하려 했다. 이처럼 조선 정부는 갑오교육개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기 직전까지 과거혜택을 통해 성균관의 교육을 회복시키려 했으나 효과가 미약했다. 1880년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1880년대에 정부에서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치했던 것은 소수의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유교교육을 통한 수기치인의 인재만으로는 당시 조선이 당면하고 있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신교육은 우선은 외국과의 외교통상 업무를 담당할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서구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부국강병에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려 하였다. 그러나 불변의 동도(東道)를 가르치는 유교교육을 본으로 하는 교육정책 속에서, 시무학인 서기(西器)를 가르치는 신교육은 동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교교육의 틀 속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

44 유길준, 「言事疏」, 허동현, 『유길준논소선』 (서울: 일조각, 1987), 8쪽.

45 김기석·유방란, 『한국 근대교육의 태동』 (서울: 교육과학사, 1999), 112-115쪽.

결과 신교육은 통역관과 약간의 서구지식을 아는 관리를 양성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으며, 신교육의 주요 내용은 외국어로 인식되었다.⁴⁶⁾

즉, 조선의 국가적 과제 해결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전통교육과 근대교육을 절충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교육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근대교육의 추진과 함께 유교교육도 실시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전자와 후자의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하는 문제에서 정책 담당자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었지만, 1894년의 갑오개혁 시기와 그 이후 1900년경까지 계속되었다. 갑오교육개혁에 따라 1894년에 개교한 사범학교와 소학교는 유학, 지리, 역사, 산술 등을 가르쳤다. 유학과 관련된 과목으로는, 소학교의 경우 오륜을 중심으로 하는 수신과 오륜행실과 소학류(小學類)를 가르치는 독서가 있었고, 사범학교의 경우 사서(四書)를 가르치는 독서가 있었다.⁴⁷⁾

1895년 음력 9월 30일의 고시에서 학부대신 서광범은 교육은 개화의 근본이고 문명은 학교의 성쇠와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소학교에서 도덕교육과 실용교육을 함께 추진할 것을 표명하였다.⁴⁸⁾ 반면에 1896년 2월의 아관파천으로 학부대신이 된 신기선은 보수 지향을 표방하고 유학적 관점에서 개화를 이해하면서 자주적인 개화를 주장하였다. 그는 교육은 덕치의 주체인 인재 양성이 목표라고 하였다.⁴⁹⁾ 1897년 8월 대한제국이 선포된 후, 조선은 신구절충 또는 구본신참을 기본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개명진보를 위해 실학을 강조하여 부국을 지향하는 신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다⁵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고종은 1899년 4월 27일 존성윤음을 발표하여 유교를 종교로 숭상하여 도덕을 지키고 인재가 사회질서 유지의 중심임을 피력하였다.

이처럼 갑오개혁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외형상으로는 덕육과 지육의 병행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 정책에 대한 합의점 도출을 위한 심층적 논의 속에 나타난 것이라거나 종교사상적 기반을 지닌 정책이라기보다는 임시방편적으로 전통적 유교교육과 근대적 서양교육을 절충한 형태의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토착종교와 기독교가 혼재하는 종교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에서 근대적인 교육체제의 정립은 갑오교육개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법

46 김경미, 갑오개혁 전후 교육정책 전개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71쪽.

47 위의 글, 84-88쪽.

48 구한국 관보 175호.

49 김경미, 앞의 글, 125-126쪽.

50 고종실록 광무원년 10. 20.

형상으로는 공교육제도가 갖춰졌고, 과거제도의 폐지로 공교육에서 유교는 설자리를 잃었다. 서구적 전통에서 근대의 공교육이란 교회와 분리된 것이었다. 서구에서 국가와 교회의 분리는 교육에서 종교의 분리를 가져오고 이는 교육의 세속화와 국가화로 나타났다. 이로써 공교육은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을 재생산하는 국민교육이 되었다.⁵¹⁾ 교회와 분리된 근대의 세속화 교육은 덕육이 아니라 지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이는 도덕교육이 강조되던 전통사회의 교육과는 그 양상이 다른 것이었다.

조선의 경우에도 개화기에는 교육과 종교가 분리되면서 교육의 세속화가 나타나고 또한 교육의 국가화도 나타났다. 국가 주도의 신교육에서는 실용적 지식 교육이 강조되면서 유교교육이 약화되었다. 과학기술과 지식의 실용성이 강조되는 신교육은 수기(修己)를 목표로 하는 전통교육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한 신교육은, 전통과 근대의 절충을 표방하기는 하였지만, 전통적 가치와 무관한 지식과 기술이 중시되었고, 유교의 입지는 축소되었다. 더우기 한국에서는, 기독교계 선교사가 근대적 학교교육을 주도했고, 전통종교인은 근대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개화기 국가 주도의 신교육은 문화적 전통에 대한 고려 없이 서양의 공교육 체제를 도입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제하고 기독교를 확산시키는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⁵²⁾ 또한 개화기의 신교육은 기본적으로 서구교육을 이식한 것이었는데, 당시에 서구교육의 도입에는 진화론의 영향이 컸다. 진화론에 근거한 서구교육의 도입은 교육을 국력, 발전, 효율성, 경쟁과 연관지어 이해하게 되었고, 나아가 근대교육에서 비인간화가 심화한 이유가 되었다. 특히 유가적 인문주의 전통이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하여, 근대교육에서 규범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⁵³⁾ 이러한 연구가 보여주듯이 개화기에는 교육에서 전통문화를 보전해온 유교의 가치가 배제되었던 것이다.

교육이 담당한 주요 기능의 하나는 전통의 계승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개화기 국가 주도의 신교육은 전통문화와 토착적 전통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교육의 내용으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신교육이 전통의 계승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까지 조선사회의 주류 종교였던 유교가 권위를 잃어감으로서 새롭게 전개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육에서 가

51 윤승용, 「한국 근대종교의 성립과 전개」, 서울: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52집, 1997, 가을호, 26쪽.

52 위의 글, 27쪽.

53 정순우, 「교육의 비인간화 현상과 그 사적 전개과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육윤리연구실, 『한국의 교육과 윤리』, 6집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331-335쪽.

치관과 세계관의 원천이 되는 종교가 분리된 결과, 교육은 인간교육의 이상과 목표를 상실하고 지식과 기술 교육으로 전락하는 길을 걷게 된다. 실용적 지식과 기술이 강조 되는 상황에서 교육 개혁이 추진되면서, 개화기의 교육은 점차 인격형성이라는 교육적 본질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이다.

IV. 결론

한국의 교육은 개화기부터 서구의 교육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개편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의 한국 교육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 교육이 지닌 문제점은 대부분 개화기에 근대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발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오늘의 교육 개혁이 혼란이 아니라 발전으로 나타나려면 개화기부터 시작된 근대 교육문화의 변동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현대 한국교육의 문제를 개화기 종교와 연관된 교육의 변화 과정에서 찾아보려고 한 것이다. 특히 한국 근대교육의 문제 가운데에서, 인격교육과 지식교육의 부조화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 문제발생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한 것이다. 오늘의 한국 교육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근대교육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근대화는 전통적 사회가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이다. 이는 또한 사회의 여러 부문이 분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종교와 교육도 분화되어 독자적 영역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서 교육과 종교의 분리과정은 한국 근대교육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주목받아야 할 측면이다. 왜냐하면 한국 근대교육의 정체성은 전통의 기반 위에서 수립되어야 했고, 전통은 토착적 종교가 보전해왔기 때문이다.

개화기는 근대적 종교지형이 태동된 시기이다. 종교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이념이 수용되었다. 조선사회의 주된 가치관이었던 유교는 국가종교의 지위를 잃어간 반면 기독교는 근대문명의 종교로 부상하였다. 그리하여 점차 다종교적 사회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권회복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으로 실용교육이 강조되었고, 이는 전통교육의 기반 위에서 실용적 지식과 기술의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그리고 부국강병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을 계몽하고 교육하기 위한 국민교육이 중시되었다. 그리하여 1880년대 중반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신교육이 실시되었고, 1894년의 갑오교육개혁으로 국민교육체제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근대적 공교육체제는, 과거제도의 폐지가 상징하듯이, 종교와 거리를 두는 교육이었다. 실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개화기에는 전통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있어 전통적 유교교육과 서양의 근대교육이 형식상으로는 병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통문화에 대해 심층적 논의 속에서 전통교육과 근대교육에 대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양자의 임시방편적 절충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전통계승과 근대문명의 수용의 양면 모두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개화기에 실시되었던 국가 주도의 신교육은 인격교육의 면에서는 종교적 기반을 상실해가고 있었고, 실용적 지식과 기술의 교육이라는 면에서는 충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관보』,

- 『독립신문』, 『승정원일기』,
『예기』, 『중용』.
- 강광식, 「조선조 유교정치문화의 구조와 기능」,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치·경제연구실, 《한국의 정치와 경제》 1, 1992.
- 금장태,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김경미, 갑오개혁 전후 교육정책 전개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 김기석·유방란, 『한국 근대교육의 태동』,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김승혜, 『종교학의 이해』, 왜관: 분도출판사, 1989.
- 박성수, 「한국근대사와 기독교」, 『한국근대사의 재인식』, 서울: 동아학연사, 1982.
- 손형부, 『박규수의 개화사상 연구』, 서울: 일조각, 1997.
- 신석호·이흥직, 『연표로 보는 현대사』, 서울: 신구문화사, 1974.
- 신순철, 「개화기의 종교와 국가」, 오경환 외, 『교회와 국가』, 인천: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7.
- 외무성조사부, 『일본외교문서』, 동경: 일본국제연합회, 1936.
- 우용제, 『조선후기 교육개혁론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유길준, 「言事疏」, 허동현, 『유길준논소선』, 서울: 일조각, 1987.
-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유길준전서』, 서울: 일조각, 1996.
- 유승옥, 「개화기 서양복식 유입의 충격과 수용」,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통문화와 서양문화 II』,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 윤승용, 「한국 근대 종교의 성립과 전개」, 서울: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52, 1997, 가을호.
- 윤승용, 『현대한국종교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 윤이흠, 「근대 한국사회의 변혁과 종교」, 이리: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 22, 1997.
- 이계학, 「교육의 본질과 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과학연구부 교육윤리연구실, 『삶의 질과 교육』,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이광린, 「개화파의 개신교관」, 『한국개화사상연구』, 서울: 일조각, 1979.
- 이원순, 「한불조약과 종교자유 문제」,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사연구》 5, 1987.

- 이만열, 『한말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평민사, 1980.
- 이상익, 「유교에서의 종교와 국가」, 오경환 외, 『교회와 국가』, 인천: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7.
- 이진구, 종교자유에 대한 한국개신교의 이해에 관한 연구 -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 이태진, 「한국의 학문적 전통과 서양 학문에 대한 반응」, 소광희 외, 『현대의 학문체계』, 서울: 민음사, 1994.
- 장석만, 개항기 한국사회의 종교 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 장철수, 「현대한국의 종교와 민간신앙」, 정창수 편, 『한국사회론』, 서울: 사회비평사, 1995.
- 정순우, 「교육의 비인간화 현상과 그 사적 전개과정」, 『한국의 교육과 윤리』 6,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정옥자, 『조선 후기 역사의 이해』, 서울: 일지사, 1993.
- 朝鮮總督府, 『朝鮮の統治と基督教』, 경성: 조선총독부, 1922.
- 최종고, 「정교분리의 한국적 의의」,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현대사회》 25, 1987, 봄호.
-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문화사전』, 서울: 집문당, 1991.
- 한국종교연구회, 『한국종교문화사 강의』, 서울: 청년사, 1998.
- 한국학문헌연구소, 『金允植全集』,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0.